



조간 제 8140 호 대표전화 062-370-7000

광남일보

GwangNam.co.kr



2026년 8월 4일 화요일 (음력 6월 22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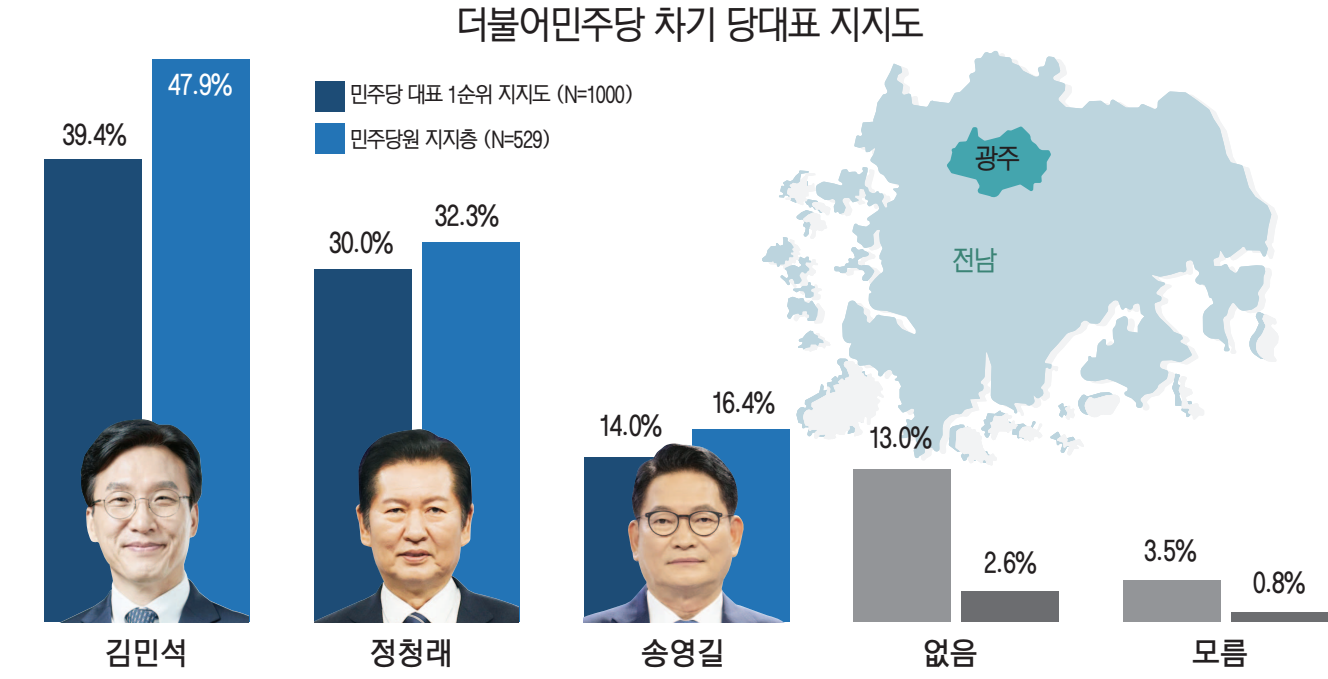
김민석 39.4% ‘선두’…정청래 30.0%·송영길 14.0%

광남일보 여론조사
더불어민주당 당 대표·최고위원 선거 ▶관련기사 2·3면

김민석 후보, 전남광주 전체·지지층·당원층 등 모두 우세
민주 권리당원 표심은 김 47.9%·정 32.3%·송 16.4%
‘최고위원 지지도’ 최민희·서미화·김용·박선원·한민수
선택 기준 ‘대통령 협력’…보완수사권 폐지 찬성 66.6%

더불어민주당 차기 당대표 후보 선호도에서 김민석 후보가 광주·전남 전체와 민주당 지지층, 당원층에서 모두 가장 높은 지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차기 최고위원 후보 가운데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선두를 차지했으며, 전당대회 후보 선택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를 가장 중요하게 본다는 응답이 많았다.
3일 광남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차기 민주당 대표 1순위 지지도는 김민석 후보 39.4%, 정청래 후보 30.0%, 송영길 후보 14.0% 순으로 집계됐다. ‘지지 후보 없음’은 13.0%, ‘모름’은 3.5%였다. 김 후보와 정 후보의 격차는 9.4%p였다.

권역별로도 김 후보가 모두 앞섰다. 광주인 1권역에서는 김민석 42.0%, 정청래 27.9%, 송영길 11.2%였고, 여수·순천·광양·곡성·구례·고흥·보성 등 전남 동부권인 2권역에서는 김민석 37.9%, 정청래 28.2%, 송영길 18.0%로 나타났다.
목포·나주를 비롯한 전남 중·서남부권인 3권역에서는 김민석 37.1%, 정청래 34.7%, 송영길 14.5%로 두 선두 후보의 격차가 2.4%p로 좁혀졌다.
연령별로는 김 후보가 30대 39.3%, 40대 46.6%, 50대 46.4%, 60대 47.0%로 가장 높은 지지를 받았다. 70세 이상에서는 정 후보가 37.0%로 김 후보 31.5%를 앞섰다. 18~29세는 정청래 22.8%, 김민석 22.3%로 비슷했으며, ‘지지 후보 없음’이 42.8%에 달했다.
성별로는 남성에서 김민석 36.1%, 정청



래 32.5%, 송영길 16.1%였고, 여성에서는 김민석 42.7%, 정청래 27.6%, 송영길 11.9%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김 후보가 47.4%로 정 후보 30.7%, 송 후보 14.7%를 앞섰다. 민주당 지지 응답자 가운데 권리당원과 일반당원이라고 답한 응답자만을 대상으로 한 당원층 조사에서도 김민석 47.9%, 정청래 32.3%, 송영길 16.4% 순이었다.
권리당원에서는 김민석 47.5%, 정청래 34.4%, 송영길 14.6%였고, 일반당원에서는 김민석 49.0%, 정청래 27.7%, 송영길 20.4%로 집계됐다.

민주당·조국혁신당 지지층과 무당층을 합산했을 때도 김민석 43.6%, 정청래 29.8%, 송영길 14.3%로 순위는 같았다.
지지 정당별로는 다른 흐름도 나타났다. 조국혁신당 지지층에서는 정 후보가 43.9%로 김 후보 28.2%, 송 후보 22.9%보다 높았다. 국민의힘 지지층에서도 정 후보가 37.4%로 가장 높았지만, ‘지지 후보 없음’이 44.4%에 달했다.
후보별 지지층을 대상으로 묻은 2순위 선호도에서는 송영길 후보 선택자의 59.4%가 김민석 후보를, 25.6%가 정청래 후보를 꼽았다. 정청래 후보 선택자의 2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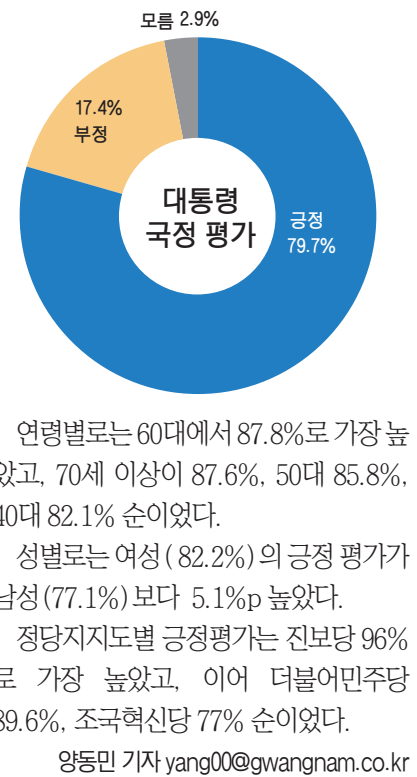
위는 송영길 40.3%, 김민석 25.9%였으며, 김민석 후보 선택자 가운데서는 송영길 67.1%, 정청래 19.4%로 나타났다.
차기 민주당 최고위원 지지도에서는 최민희 후보가 22.3%로 가장 높았다. 이어 서미화 16.1%, 김용 9.8%, 박선원 8.5%, 한민수 6.1%, 이성운 5.7%, 김영호 3.7%, 임미애 2.6% 순이었다. ‘지지 후보 없음’은 19.5%, ‘모름’은 5.8%였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도 최민희 25.1%, 서미화 18.3%, 김용 11.3%, 박선원 9.1% 순이었으며, 민주당 당원층에서는 최민희 26.8%, 서미화 18.1%, 김용 11.5%, 박선

원 9.8%로 집계됐다. 권리당원은 최민희 26.0%, 서미화 19.5%, 김용 12.5% 순으로 선택했다.
민주당 전당대회에서 지지 후보를 선택할 때 가장 중요하게 고려하는 기준으로는 ‘이재명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가 30.9%로 가장 높았다. ‘소통과 통합 능력’ 17.5%, ‘정책 능력과 전문성’ 16.5%, ‘정치 경력과 리더십’ 11.2%, ‘도덕성’ 10.6%, ‘혁신성’ 6.8%가 뒤를 이었다.
민주당 지지층에서는 ‘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가 38.9%로 더욱 높았고 권리당원층에서도 41.2%가 이를 최우선 기준으로 꼽았다.
반면 18~29세에서는 ‘정책 능력과 전문성’이 28.1%로 가장 높았고 ‘이 대통령과의 협력 관계’는 13.9%였다.
정당 지지도는 더불어민주당이 74.7%로 가장 높았다. 국민의힘 8.8%, 조국혁신당 4.1%, 진보당 2.1%, 그 외 정당 1.3%, 개혁신당 0.6% 순이었다. ‘지지 정당 없음’은 7.6%, ‘모름’은 0.8%였다.
민주당 지지도는 광주 70.5%, 전남 동부권 76.4%, 전남 중·서남부권 79.1%였다. 연령별로는 60대가 87.2%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 85.4%, 40대 80.4%, 50대 79.2% 순이었다. 18~29세에서는 민주당 39.5%, 국민의힘 28.5%, 지지 정당 없음 18.1%로 나타났다.
▶2면으로
이현규 기자 gnnews1@gwangnam.co.kr

이 대통령 “일 잘하고 있다” 79.7%

전남광주 국정지지도 ‘압도적’…서부권·60대 가장 높아

8·17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진행된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여론조사에서 이재명 대통령의 국정운영에 대한 긍정평가가 80%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800조원 규모의 호남 반도체 클러스터 조성 등 국가 주도 대규모 프로젝트에 대한 기대감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된다.
광남일보가 조원씨앤아이에 의뢰해 지난 1~2일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거주하는 만 18세 이상 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이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매우 잘하고 있다’가 54.7%, ‘잘하고 있는 편’ 25.0% 등 긍정평가가 79.7%로 조사됐다. 반면 ‘잘못하는 편’ 7.9%, ‘매우 잘못하고 있다’ 9.5% 등 부정평가는 17.4%였다. ‘모름’은 2.9%였다.
권역별로는 3권역(목포,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영광, 함평, 무안, 영암, 신안, 진도, 해남, 완도, 강진, 장흥)의 국정 긍정평가가 84.1%로 가장 높았다. 이어 2권역(여수, 순천, 광양, 곡성, 구례, 고흥, 보성) 82.6%, 1권역(광주) 74.7% 순으로 조사됐다.
부정평가는 1권역 22.0%, 2권역 14.5%, 3권역 13.6%였다. 3권역인 전남 서부권의 긍정평가가 1권역인 광주권보다 9.4%p 높아 통합특별시에 가장 높은 국정 지지세를 보였다.



연령별로는 60대에서 87.8%로 가장 높았고, 70세 이상이 87.6%, 50대 85.8%, 40대 82.1% 순이었다.
성별로는 여성(82.2%)의 긍정 평가가 남성(77.1%)보다 5.1%p 높았다.
정당지지도별 긍정평가는 진보당 96%로 가장 높았고, 이어 더불어민주당 89.6%, 조국혁신당 77% 순이었다.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민형배 “광주 군 공항 이전 실마리 나올 듯”

국가산단 지정 진전…무안군 참여 기대

민형배 전남광주통합특별시장은 3일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와 국립의대 설립을 위한 대학 통합, 두 가지 사안 다 해결의 실마리가 나올 것 같다”고 밝혔다.
민 시장은 이날 무안청사에서 기자들과 차담회를 갖고 지역의 난제인 광주 군 공항 이전 문제 등에 대해 입장을 밝혔다.
민 시장은 “군 공항 이전 예비 후보지인 무안군이 국가산단을 요구하는데 그 문제가 풀릴 것 같다”며 “정부와 예

기 중인데 무안군의 요구를 감당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문제는 무안군이 생각하는 산단의 규모와 정부가 생각하는 규모의 차이”라며 “(군 공항) 후보지를 결정하는 과정에 무안군도 참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민 시장은 또 “무안군에 지원하기로 한 1조원도 통합 지원금을 활용하는 방안 등을 포함해 여러 방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무안군 입장에서 최대한 유리한 조건을 확보하려고 할 것이

지만, 그것도 충분히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다”고 설명했다.
의대 소재지를 두고 갈등을 겪고 있는 목포대와 순천대의 통합 문제에 대해선 “이번 주말이 지나면 방향을 찾을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민 시장은 “두 대학 모두 자기 대학으로 의대가 와야 한다는 의견을 냈는데 모든 제안을 백지상태로 놓고 통합하는 방안을 논의해달라고 했다”며 “통합이 안 되면 다음 단계도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정철 기자 holbul@gwangnam.co.kr
이승훈 기자 photo25@gwangnam.co.kr



행복한 미소가 넘치는 해피니스CC로 초대합니다!

· 회원모집 안내

구 분	분양금액	구좌	회 원 특 전
VVIP (A형)	700	6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그린피50% 할인, 연25회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예 그린피 면제 위임시 동반3인 그린피 70%할인 (1일·1회 사용) 비회원예 그린피 면제 위임시 그린피 70%할인 (1일·1회1팅4인 기준) (단, 그린피 면제는 정회원, 지정회원, 비회원 중 1일·1회1인 사용가능)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VVIP (B형)			-회원 없음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70% 할인 (연 60회/월 5회 소멸성, 1일·1회1팅4인 기준)
VIP 정회원	500	9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정회원 동반3인 그린피50% 할인, 연20회그린피면제 (1일·1회 사용) -지정회원 2인 : 그린피 면제 (단 배우자, 직계가족 또는 임직원, 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120회 사용/월 10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하트 정회원	320	5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지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72회 사용/월 6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해피 정회원	180→160 (할인 20)	3좌	-정회원 1인 : 그린피 면제 (1일·1회 사용), 골프호텔 할인혜택 -무기명카드 1매 발급 : 그린피 50%할인 (연 36회 사용/월 3회 소멸성, 1일·1회 사용)
회원권 문의 전화 ☎ 061)330-5004			

· 골프호텔 객실



해피니스컨트리클럽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나주시 다도면 다도로 171-60

대표전화 061) 330-5000 | 예약전화 061) 330-5001~4